



진달래꽃

김소월

나 보기가 역겨워
가실 때에는
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.

영변에 약산
진달래꽃
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.

가시는 걸음 걸음
놓인 ㉠ 그 꽃을
사뿐히 즈려 밟고 가시옵소서.

나 보기가 역겨워
가실 때에는
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.

핵심 정리

갈래	자유시, 서정시
성격	전통적, 애상적, 민요적, 향토적
제재	임과의 이별
주제	승화된 이별의 정한
특징	•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는 형식임 • 1연과 4연이 수미 상관을 이룬다. • 전통적 정서를 민요조의 3음보 율격에 담음. • 여성적이고 간절한 어조를 띤다.



확인 문제

() 학년 () 반 () 번 이름: _____

01 1연에서는 이별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전통적 여인의 인종(忍從)이 나타난다. (○, ×)

02 2연에서 꽃을 뿌리는 행위는 임이 떠나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의미한다. (○, ×)

03 3연에서 '즈려 밟고' 가라는 말에는 화자의 자기희생적 태도가 나타난다. (○, ×)

04 위 시의 형식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)

- ① 수미 상관을 통해 시상의 안정을 취하고 있다.
- ② '~우리다'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.
- ③ 경어체를 사용하여 화자의 순종적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.
- ④ 가정의 형식을 통해 이별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.
- ⑤ 여성적 어조를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강한 의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.

05 위 시의 ㉠과 <보기>의 ㉡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? ()

보기

㉡ 뒤통수를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에
자시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
밤비에 새잎꽃 나저든 날인가도 여기소서

- ① 숭고한 자연의 이치
- ② 시적 화자의 분신(分身)
- ③ 어렵고 암울한 시대 상황
- ④ 타인에 대한 배려의 마음
- ⑤ 세상에 대한 이기적인 욕망

06 위 시와 <보기>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()

보기

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
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
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. //
봄 한철 / 걱정을 인내한
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. //
분분한 낙화.....
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
지금은 가야 할 때, //
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/ 머지않아 열매 맺는
가을을 향하여 //
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. //
헤어지자 /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
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//
나의 사랑, 나의 결별,
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
내 영혼의 슬픈 눈. //

- 이형기, '낙화' -

- ① 위 시와 <보기> 모두 꽃이라는 소재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.
- ② 위 시와 <보기> 모두 임의 떠남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다.
- ③ 위 시와 <보기>의 화자는 모두 이별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.
- ④ 위 시는 <보기>와 달리 전통적 율격을 통해 시적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.
- ⑤ 위 시와 달리 <보기>는 이별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후 영혼의 성숙이라는 가치를 얻고 있다.

서술형

07 ㉠에 나타난 표현법과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.
